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지난 1월 6일(수)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심을 기념하는 주현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의무헌금을 약정하여 봉헌하는 날입니다. 헌금봉투는 예배 전에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오늘 오후 청파성서학당 이후에 동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2016년 교우전화번호부가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파교회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예배 후 사랑방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선교회 회장단 모임이 1시에 자모실(3층)에서 있습니다.

재무부 회의가 오늘 오후 3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한 해의 재정을 결산하고 새해의 예산을 세우는 구역회가 다음 주일 오후 1:30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12일(화) 오전 10시 광희문교회에서 열립니다.

유병창 씨와 유한나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6일(토) 오후 4:30 더리치 웨딩홀 2층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1부	사 62:1-5 / 시 36:5-10	2부	마태 4:12~22
예배	고전 12:1-11 / 요 2:1-11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안홍숙 이증자 이수정 노성희 이해경 강신철 홍순구 최재욱
 다음 주 식당봉사 : 이소애 오미숙 이영란 이소혜 박유경 변재민 강세기 김성우
 오늘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51-60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3남선교회 (46-50세)
 커피 판매 봉사 : 4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모으로
 상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주현 후 제1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19.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 보이셨음에 감사합니다.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고백하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 곁에 찾아가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일깨우셨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대량살상 무기를 방패삼아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주변국들이 무조건적인 고립정책보다는 지혜로운 소통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호10:12 인도자
- ♣ 교 독 문 121. 주현절(1) 다 함께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 대표기도 김인걸 장로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488.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다 함께
- ♣ 성경봉독 I. 사43:1-7 행8:14-17 눅3:21,22 하진솔 선생
 II. 골 4:2-6 권혁순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사명 찬양대
- 말 씬 I. 하나님의 손길 김재흥 목사
 II.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용기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권미정	김광일	이부용	김나름	김재환	김진선	김재흥	최희영	박범희
박미영	방극숙	배재경	이수정	서정순	안길상	이형숙	안정숙	이계선	이소숙
이국노	김민화	이민범	공재량	이성범	권현숙	이재삼	전정현	임주빈	최현옥
정복순	정재기	정현숙	조지연	최옥자	한인철	조윤숙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강금분	강봉석	강신철	이혜경	김광일	이부용	김순령	김기석	김희우	김성순
김성한	조영순	김애경	박정수	김영희	김정민	김혜령	김중수	이순정	김태정
김필순	김해선	문금석	문복순	박기영	박미희	박병구	김인순	박수민	박재영
이현정	박홍재	송동준	김진경	송우석	안정숙	유중희	유청빈	이계선	이소순
이미휘	이재문	이영란	이우원	옥귀희	이유일	김미희	이은혜	이종현	임선양
신현숙	임설희	임승동	백혜숙	장동열	최윤주	장영숙	장원호	박성희	전인섭
정다운	홍예선	정복순	정윤성	서효진	조병무	송양진	조병주	조해민	이채령
최병민	최옥분	최옥자	최용현	김고은	최윤하	한종운	박지영	허정호	홍소형

무명29

생일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규석 박경선 무명1

녹색꿈헌금

박순섭 권미숙 송동준 김진경 임설희 최다미 최보미 무명2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쉽	청파1속	김재흥	쉽
안 디 옥	최경미		청파2속	송형운	
가 나 안	장영숙		청파3속	하현철	
베 다 니	박홍재		청파4속	김정민	
시 온	권미숙		청파5속	장영숙	
에 베 소	백혜숙		청파6속	신진식	
빌 립 보	곽권희		청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청파8속	이범석	
나 사 렷	김경혜		청파9속	김인걸	
			청파10속	장영숙	

누가 당신의 언 발 녹여줄까

- 위안부 할머니 평화비 앞에서 -

이제도 찬바람은 얼어붙어 살을 저미는데
 누가 당신의 언 발을 녹여줄까
 상처투성이 거친 발 보듬어줄까
 누가 당신 옆 빈 의자에 앉아
 어깨동무 해 줄까
 따뜻한 온기로 품어줄까/
 누가 당신의 오돌거리는 어깨 위에
 따순 목화솜으로 지은 목도리를
 폭신하게 감아 엮어줄까
 누가 마침내 함께 일어서서
 하늘을 향해 큰 울음으로
 위로의 노래 불러줄까/
 천 날을 견디며 흘린 눈물이 얼어붙은
 빈 의자는 놓여졌지만
 누가 마침내 함께 일어서서
 당신을 부추겨 일어서서
 이제 겨우 예순 두 목숨 살아실제
 천 명의 당신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 김준기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516.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주님처럼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들이 되십시오.	
다 함께:	아멘. 다시 한 번 믿음의 사명을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보겠습니다. 입술의 말보다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동호회 / 각 동호회별 모임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이범석 목사 2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박홍재 장로	이재애 선생 박시내 집사

1월	영접위원	한완식 임주빈 김정주 최현옥 고숙이 김정미 최은미
	헌금위원	박홍재 정영선

자발적 불편

■ 손봉호(기윤실 자문위원장) 인터뷰

1.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매우 뒤떨어진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경쟁적이라는 것입니다. 경쟁적이라는 말은 서로 공유할 수 없는 가치들을 서로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적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은 한 사람이 많이 소유하면 다른 사람이 많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고급 가치, 사랑이라든가 자비라든가 혹은 지혜라든가 이런 것은 한 사람이 많이 가져도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질 필요가 없어요. 고급 가치보다는 하급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적이 되고 경쟁적이 되니까 결국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요.

2. 편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자발적 불편운동이 왜 필요한가요?

...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또 공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다 같이 추구하고 다른 사람만큼 편리하게 살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

3.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나만 손해 보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내가 주장하는 소위 선지자적 비관주의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옳으면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조금 나아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

가정영역의 자발적 불편 - 미래를 위한 물품 나눔

아직도 ‘중고물품’ 하면 꺼려지십니까? 중고물품의 인기를 아직 잘 몰라서 그러신 겁니다. 수백만 원 하는 수입 패딩만 인기 있는 게 아닙니다. 알뜰족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동네마다 나눔 장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형 서점들은 연달아 사고파는 인터넷 헌책방을 개설하고, 인터넷 빈티지 숍들도 마니아층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입으니까 가격이 부담스러워 질세라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 빈티지 숍으로 향하는 개념소비자들도 많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이나 독일 등에서 유학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몇 년씩 있으면서 대부분 중고 가구, 구제 의류, 헌책 등에 대한 이용 경험이 있고, 중고물품에 대한 거부감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들 나라는 유난히 순환이 빠르고 유행에 민감한 한국사회와는 다르게 알뜰하고 실용적인 것들을 선호합니다. 중고물품을 생각할 때 꺼려지는 것은 단지 편견일 뿐입니다.

티셔츠 한 장 만드는 데 들어갈 면화 생산에 물이 970리터, 종이 1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각종 다른 자원 98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재료 추출,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이 뒤따르게 됩니다. 쉽게 사서 쓰고 버리는 일들을 줄여야 합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아직 충분히 쓸 수 있는 물건이 버려질수록 새 제품은 만들어지게 되고 자원의 낭비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물건을 재사용하고 빌려 쓰고, 나누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중고물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아 쓰지 않는 물건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나만의 정리의 날을 제정해 오랫동안 쓰지 않는 물건들을 모아 이웃들과 나누거나 재사용 자선가게에 기부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소유를 줄이고 비울수록 삶의 공간은 더 여유로워지고, 정신까지 더 맑아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